

‘초록의 향연’ 담양대나무축제 5월 1일 개막

죽녹원·담빛음악당 일원 등서 5일간 전시·공연·체험 관방천 수상 조명·영화 상영 등 야간콘텐츠 대폭 확대

올해 제25회를 맞은 담양 대나무축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죽녹원과 종합체육관, 담빛음악당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빛나라 빛나, 대나무!’를 슬로건으로 대나무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을 선보인다. 특히 밤까지 즐기는 체류형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축제장 곳곳의 대나무 소망등을

비롯해 야간 조명 장식, 관방천 수상 조명, 대숲 속 야간 영화 상영 등 야간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5월 1일 오후 5시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주차장 주무대 일원에서 열린다. 개막 퍼레이드와 운도현 밴드 등 인기 가수 축하공연, 드론 라이팅쇼 등 다채로운 행사로 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2일에는 정관스님과 기순도 명인이 참여하는 ‘맛이 죽(竹) 여주네’ 음식 경진대회를 진행하며, 3일은 군민의 날 기념식과 남진 콘서트,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뮤지컬 ‘베베핀’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새로운 담양 관광캐릭터의 브랜드 선포식과 더불어, 캐릭터 팝업스토어와 포토존, 굿즈 전시 등으로 축제장 전역을 채워 다채로움을 더한다. 종합체육관에서는 25년간 군민과 함께 만든 축제 역사를 영상으로 송출하고 대나무 수장고에 보관된 축제품 전시와 대나무 쉼터를 조성하는 등 대나무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관방제일 일원에는 대나무 전통놀이, 뗏목 타기, 미꾸라지 잡기, 수상 워터런 등 역동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람 동선을 확장한 담빛음악당 일원에는 대나무 로보 포토존과 에어바운스 놀이 공간, 드론 제작 및 날리기 체험, 드론 스피드 대회 등을 배치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분위기를 더했다. 죽녹원에서는 각종 공연과 더불어 축제 기간 처음으로 대숲 속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대숲 영화관’을 운영하며, 지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야간 개장도 오후 9시까지 이어간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동행축제’와 향토음식관을 운영해 지역의 맛과 상생의 의미를 담아낼 계획이다. 아울러 축제 기간 죽녹원(3000원), 메타랜드(2000원) 입장권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축제장과 읍내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더욱 빛나는 야간 경관과 담양만의 특별한 체험이 더해져 담양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가족, 친구, 연인들이 함께 즐겁고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iss270@gwangnam.co.kr



「한-불 식문화 교류의 밤」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MCF) 환영 행사

« Soirée d'échange culturel culinaire franco-coréen »
Cérémonie de bienvenue pour l'association des Maîtres Cuisiniers de France (MCF)



나주시가 최근 프랑스 명장 요리사협회 요리사와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나주 식문화와 지역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나주시

나주 전통 식문화, 프랑스 미식 전문가들도 주목

‘나주방문의 해’ 연계 중가 음식·사찰 음식·농특산물 소개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세계 미식 전문가에게 지역 식재료의 매력을 알리며 국제 교류 확대에 나섰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 소속 11개국 요리사 등 미식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과 전통 식문화를 소개하는 교류 행

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 나주방문의 해’와 ‘한불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나주 식문화의 국제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식재료의 세계 시장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나주 지역의 중가 음식과 불회사 사찰 음식이 함께 소개됐다.

강정숙 남파교객 중부가 준비한 200년 전통 씨간장으로 담근 계장과 들깨로 볶은 호박고지 등이 어우러진 목사밥상과 철인 불회사 스님이 준비한 나주 미나리로 만든 미나리강화, 불회사 비로약자를 활용한 백김치 등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에 참석한 요리사들은 나주 식재료의 활용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각자의 레스토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식재료와 조리 방식에 주목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의 전통 음식과 식재료를 세계적인 요리사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만남이 나주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는 1949년 설립된 프랑스 최고 권위의 요리사 협회로, 전 세계 20개국 500여명의 명장 셰프와 식품 관련 인사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순천,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순천만국가정원·낙안읍성 등 관광자원 호평

순천시가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통해 외국인 관광 확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며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중국 상해에서 출발한 국제 크루즈 ‘아도라 매직시티호’가 최근 여수엑스포항에 입항, 이 가운데 중국 관광객 212명이 순천을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크루즈 370여 관광객들이 순천을 방문한 바 있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의 순천 방문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크루즈 관광객은 순천시와 민간업체(에이치에스퍼저산업)가 협력해 유치 활동을 펼치며 성사됐다. 시는 민간 협력을 통해 해외 관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4~5월에도 대규모 크루즈 관광객이 추가로 순천을 방문할 계획이다. 순천을 찾은 관광객들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등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방문하며 생태와 역사, 전통이 어우러진 순천의

매력을 경험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봄 기운이 스며든 정원의 풍경과 꽃향기를 즐기며 자연과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순천만습지에서는 흑두루미와 철새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의 가치를 체감했고, 낙안읍성에서는 전통 가옥과 생활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 단체 관광객들은 국가정원 내 BBQ빌리지와 낙안읍성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고, 특산물도 사가는 등 지역 관광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 크루즈 관광객 방문은 순천의 생태 관광 자원이 세계 관광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해외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외 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형 콘텐츠 확대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한 중국 크루즈 관광객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

고흥, 어르신 ‘건강한 노후’ 밀착 지원

노인전담 주치의제...의료 사각지대 해소

고흥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가정방문 노인전담 주치의제’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전담 주치의제’는 공중보건과(의과·한의과)와 보건(지)소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인력이 어르신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 확인,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익숙한 자택에서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군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돌봄·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통합돌봄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노인전담 주치의제를 통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2만120회의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했다. 분야별로는 내과 8708회, 한의과 1만1412회에 달하며, 이는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현장 중심 서비스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함평 청년농업인, 미래 농산업 모델 발굴

4-H연합회 20명 일본 탐방...식품박람회·유통시장 견학

함평군 청년농업인들이 일본 농식품 산업 현장을 방문해 글로벌 농산업 흐름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최근 4-H연합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일본 도쿄 일원에서 ‘농산업 모델 발굴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에는 20여명의 청년농업인이 참여했으며, 세계 농식품 산업 동향과 선진 농업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농산업 모델을 탐색했다.

참가자들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식품박람회 중 하나인 푸드엑스 재팬(FOOD EX JAPAN) 2026을 방문해 세계 각국의 식품산업 동향과 농식품 가공·유통 트렌드를 살펴봤다. 특히 인공지능(AI)·푸드테크 관련 전시 구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식품 산업에 적용되는 AI 기술 동향을 확인했으며, 프리미엄 농산물, 기능성 식품, 간편식(HMR) 등 글로벌 식품시장 변화와 농산물 고부가가치 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 일본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오타시장을 찾아 농산물 유통 시스템과 경매 구조,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유통 체계를 견학하며 선진 농산물 유통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농협(JA) 그룹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 지역 농산물의 로컬푸드 운영 모델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탐방을 통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유통·체험을 연계한 농산업 모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농업인이 글로벌 농식품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와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화순 ‘만원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

내달 3일까지 접수...신규 물량 100세대 대상

화순군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6년 만원임대주택’ 2차분 입주자를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정부24를 통해 모집한다. ‘만원임대주택’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거지원 정책이다.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로 신청할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됐거나 입주 전까지 전입이 가능한 예정자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 우선순위의 기준에 다자녀(2인 이상) 항목을 추가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24명(10세대) 추천권을 우선 부여한다. 또한 모집별 추천 후 미달 물량은 다른 모집군으로 재배정해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총 300호 모집에 총 2605명이 지원해 2023년 18대1, 2024년 12대1, 2025년 1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청년 153세대와 신혼부부 124세대가 입주했다. 이번 2026년 2차분 모집은 신규 물량 100세대(청년 50세대, 신혼부부 50세대)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공급 주택은 화순군 화순읍 광덕지구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마트·병원·관공서·학교 등 생활 인프라와 교통 여건이 우수해 입주 청년과 신혼부부의 만족도가 높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확인 또는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379-3631)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